

현안과제연구

2010. 10. 29

도시농업의 개념 및 선진 사례 분석

연구수행 : 유학열 · 조영재 · 허남혁

CDI 충남발전연구원

도시농업의 개념 및 선진 사례 분석

유학열·조영재·허남혁

- 목 차 -

I. 도시농업의 개념	2
II. 도시농업의 유형 및 종류.....	6
III. 도시농업의 선진 사례	10

제 1 장

도시농업의 개념

1. 도시농업의 정의

- 도시농업(都市農業, urban agriculture)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즉, 도시와 농업의 관계 속에서 공공적이며, 생태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농업으로, 농업을 통한 도시문제의 완화내지 해결을 위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는 농업임
- 그리고 공간적 영역은 도시 행정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의 형태를 포괄하는 것이며, 이들 농업형태는 주체에 따라서 농업인은 자가생산과 상업적 생산형태를, 도시민은 농업을 활용한 취미 및 생활농업의 형태를 띠는 농업임(장동헌, 2009)

2. 도시농업의 의의

- 채소류의 일부 자급을 통해 수송량 단축과 이동거리의 절약에 따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폐열과 우수를 재활용하고, 생활 쓰레기를 퇴비화 해서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에 도움이 됨

- 유기농업을 도입하기 용이하고 가족과 함께 경작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일정 부분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웃 주민과 교류가 용이해져 공동체의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 정신건강에 도움을 줌
- 도시농업은 도시의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과 지역공동체형성, 로컬푸드, 개인의 식생활건강 뿐 아니라 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표 1〉 도시농업의 주요 개념

구 분		도시농업의 주요 개념
대상적 측면	이창우 (2005)	도시 행정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으로, 텃밭경작, 토지 무단점유, 도시농업, 상업적 도시농업, 취미농업으로 구분
	김종덕 (2002)	도시의 공터, 아파트 베란다, 뒤뜰, 옥상 등에서 영농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이영민 (1997)	집주변의 공한지를 이용한 자급용의 일명 채원지라 불리며, 도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텃밭
	Isabel 외 (2004)	도시민이 도시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 식량생산에는 소동물 사육과 정원에서의 채소 재배도 포함
농업생산 측면	유병규 (2000)	도시 내의 농촌이라는 공간적 영역에 근교농업이 갖고 있는 원래의 1차 산업적 의미인 생산 개념과 함께 농업을 기반으로 한 2·3차 산업의 가공 및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복합 산업화하는 개념으로 정의
	장동헌 외 (2005)	도시지역에 계획적으로 보전되어야 하는 농업
	C.J.Sawio (2001)	도시 및 그 근교지역에 있는 토지에서 식량과 기타 생산물을 생산하는 활동
환경적 측면	김수봉 외 (2002)	도시 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농업
도시화 과정	南 淸彦 (1978)	종래 대도시 근교농업이 도시화의 급격한 확대가 진행되면서 거대 도시에 둘러싸인 농업
	波多野憲男 (1991)	도시계획상 시가와 구역에 존재하는 농지·농업

자료: 장동헌(2009), '도시농업 육성의 정책적 함의',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pp.979-994 연구에서 재정리

3. 도시농업의 기능 및 역할

- 농업생산 및 신선채소 공급기능
 - 도시농업으로 생산되는 채소류는 자가 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도시농부가 생산지와 가까운 시장에 직접 판매할 수 있음
 -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 상인 없이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싼값에 신선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음
-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기능
 - 도시농업은 도시민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산지 및 수목과 함께 도시녹지를 유지하는데 기여함
 - 농지를 비롯하여 주변의 용수로, 저수지, 산림 등은 동식물들에게 중요한 서식처를 제공함
- 교육·문화적 기능
 - 도시농업은 어린이에게 자연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줌
- 완충기능 및 공간보유 기능
 - 경작지는 거주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통풍, 일조확보에 필요한 공간으로 도시의 과밀억제 및 공간의 쾌적성 유지에 기여함
 - 그리고 프라이버시 확보, 소음, 공장, 분진시설 등으로부터 주거공간을 분리시켜주는 완충공간, 피난공간으로서 생활의 쾌적성,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제공함
- 도시의 가치와 삶의 질 제고기능
 - 농업을 통한 사회복지 제공,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활동의 장 확대

제 2 장

도시농업의 유형 및 종류

1. 도시농업의 유형

○ 텃밭경작

- 자신의 집 뜰에 자가소비용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로 테라스나 발코니 또는 옥상에서 채소를 가꾸는 형태를 포함함

○ 무단점유 도시농업

- 타인 소유의 공한지 상태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

○ 상업적 도시농업

- 도시행정구역내에서 채소, 화훼, 가축 및 어패류 등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형태

○ 취미농원

- 합법적으로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토지상에서 농작물을 주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경작하는 형태로, 주말농장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하는 도시텃밭도 이 범주에 포함됨

2. 도시농업의 종류

○ 텃밭

- 집주변의 공한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의 상업적 판매가 아닌 자급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채원지라고도 불리며,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집근처의 경작지

○ 시민공원

- 일반적으로 시나 시민단체에서 도시 내 농지를 일정 규모로 구획을 나누어 도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 이용자 가족들이 함께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
-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적인 재배방법을 교육해 주기도 함

○ 주말농장

- 시민농원과 비슷한 농장이나,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임대받은 농지에서 가족과 함께 만드는 작은 텃밭을 개념
- 도시 시가지 내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나 도시 행정구역내에 있는 농업지역에서 도시민들이 하는 농업행위라는 점에서 도시농업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음

○ 취미농원

- 경작지의 운영이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재배작물의 판매나 가족들의 학습 및 친목도모보다는 작물경작을 생활의 일부로 여가시간에 취미를 즐기기 위해 조성한 경작지

○ 생산농원

- 경작지에서 재배한 작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곳으로 다른 기능들보다 생산성을 우선으로 하는 경작지

○ 관광농원

- 농촌지역 및 도시인근의 과수원, 농장, 목장 등의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
- 농업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 편의시설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업생산물이 있는 지역을 찾아와 자연도 즐기고, 농작물을 직접 채취 또는 재배 하여 농업을 체험하기도하며, 그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건을 갖춘 도시농업

○ 치료농원

-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도시농업
- 식물 및 원예활동을 매체로 한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을 통하여 심신의 치료와 재활, 그리고 녹색의 쾌적성 및 환경회복을 얻고자하는 원예치료를 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병원, 재활시설, 직업훈련원, 공동체정원, 식물원, 학교, 원예사업장, 교도소 등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제 3 장

도시농업의 선진 사례

1. 영국의 사례

- 할당채원지(알로트먼트 allotment): 지자체가 도시 내 공한지를 시민 개인이나 지역사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권을 설정해주어, 식량생산과 여가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교류를 유도하기 위함(장동헌, 2006: 43)
 - 18세기와 19세기 인클로저법에 대응하여 인클로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농촌지역의 토지를 의미: 1845년 일반 인클로저 법에서 토지없는 빈민들에게 ‘필드 가든(field garden)’ 형태로 1/4에이커의 땅을 제공할 것을 명문화함
 - 19세기 후반부터는 도시 빈민층의 식량을 생산할 목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20세기 초반 대도시 스포츠 현상 억제와 실업자 구제 등을 위해 확대됨
 - 알로트먼트법 제정(1908년): 공공소유의 유휴지와 수용·구입·차입한 300평 미만 농지를 채소 및 과수재배를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대를 받고 임대함
 -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8년 영국 전역에 60만개에서 150만개로 증가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시에는 ‘승전을 위한 경작’ (Dig for Victory)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140만 톤의 채소 생산
 - 2차대전 이후에는 산업화와 도시화 경향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 모두가 급격히 감소함
- 최근의 부활
 - 최근에는 신선한 채소와 수확, 지역사회 유지와 교육, 치료상의 목적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약 50만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지자체에서 임대하며, 판매 및 주거는 제한됨¹²

1 자세한 내용은 <http://www.communities.gov.uk/documents/communities/pdf/131012.pdf> 참조

2 구조 및 평면도는 다음 참조 <http://www.kingston.gov.uk/g3allotmentstrategyfinal260208.pdf>

- 최근 지자체들이 얼럿먼트 전략(5~10년 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체계적으로 얼럿먼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들의 재정압박으로 인해 얼럿먼트 공급은 어려운 상태이며 그에 따라 대기자들이 많은 상태임에 따라 기존의 얼럿먼트 형태가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커뮤니티 가든이나 도시농장 형태가 신규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민간조직으로는 1901년 결성된 대표조직인 <영국 얼럿먼트 & 레저농원협회 (NSALG)³와 1980년 결성된 <도시농장 및 커뮤니티가든 협회 Federation of City Farms & Community Gardens>⁴가 활동 중이며, 온라인 커뮤니티로는 <얼럿먼트 UK>⁵가 있음
- 2002년 민간협력기금인 <얼럿먼트 부흥 이니셔티브 Allotments Regeneration Initiative>⁶가 출범하여, 얼럿먼트 활성화 지원사업들을 벌이고 있음
- 2010년 8월 9일~15일까지 <전국 얼럿먼트 주간> 행사를 진행함
- 2009년 현재 영국 국민의 33%가 자신이 직접 과일과 채소를 기르고 있다고 응답함⁷: 얼럿먼트 소유자 중 50대 이하와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임⁸
- 얼럿먼트 부족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 초 영국정부는 개발예정지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얼럿먼트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임⁹

○ 런던 사례

- 2006년 런던의 먹을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10년짜리 장기전략계획인 <London Food Strategy> 발표: 그 중에서 도시에서의 경작을 적극 장려(“수요에 대응하여 개인 및 커뮤니티 경작

3 <http://www.nsalg.org.uk>

4 <http://www.farmgarden.org.uk>

5 <http://www.allotments-uk.com>

6 <http://www.farmgarden.org.uk/ari>

7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00401103043/http://www.defra.gov.uk/news/2009/090923a.htm>

8 <http://www.foodvision.gov.uk/pages/allotments>

9 <http://www.guardian.co.uk/uk/2010/jan/04/grow-your-own-unused-land-2030>

- 얼로트먼트, 커뮤니티 가든, 공원 및 공공공간, 학교운동장 등 - 을 확대함” 10

〈표 2〉 런던 캠프드 먹거리 전략계획 중 먹거리 기르기(food growing) 부분

	목적	행동	결과 및 측정	책임 (주도/지원)	시간
2.1	2012년까지 2012개소의 새로운 텃밭 확보	텃밭재배가능 토지의 확인	기존 및 가용 텃밭재배공간을 보여주는 지도 작성	캠든 자치구	중 기 (2012년3월까지)
2.2	라하는 <Capital Growth>의 목표에 부응, 캠프드에서 60곳을 창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제공	공공공간에서의 텃밭재배를 가능케하며 이를 지원	2010년까지 자치구 내 60곳의 신규 텃밭 확보	캠든 자치구 서스테인 ¹¹ 굿 푸드 파트너십 ¹²	중기
2.3		새로운 텃밭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 개발	-공개지침의 개발 -지침의 활용과 텃밭 프로젝트의 증가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캠든 자치구 서스테인 굿 푸드 파트너십	단 기 (2010년 말까지)
2.4	텃밭 모범사례를 장려하는 등 더욱 통합적인 접근의 보장	지역개발계획(LDF)에 포함시킴으로써 신규주택지 및 기타개발지에신규 얼로트먼트와 커뮤니티 가든의 공급 및 재정지원	-최종LDF에 따라 목표치 설정	캠든 자치구 서스테인	중기
2.5		텃밭활동 기참여 개인·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경작참여 개인·단체 DB구축 -다양한 텃밭재배훈련과정 제공을 위한 4곳의 센터 조성	캠든 자치구 서스테인	중기
2.6	텃밭재배를 통해 캠프드주민의 정신 및 육체건강 증진	캠든구 건강전략 및 정책에 텃밭재배 포함시킬 것	-지도작업을 통해 기준을 확립 <프로그램과 전략> -텃밭재배와 요리에 대한 인식, 신념, 기술의 증진 -체육활동 증진 -과일채소섭취 증대	NHS 캠든 캠든 자치구	장 기 (2012년3월이후)
2.7		텃밭재배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 보장	텃밭재배 프로젝트 참여자 10% 증대 삶의질, 체육활동수준, 과일채소섭취량 증대	NHS 캠든	중기
2.8	텃밭재배 지원을 위한 후원자와 재원의 확보	캠든에 본거지를 둔 단체들의 텃밭재배 및 후원의 장려	2012년까지 텃밭재배나 후원을 위한 최소한 6개의 사업체 확보	굿 푸드 파트너십 서스테인	중기

10 <http://www.london.gov.uk/londonfood/docs/london-food-strategy.pdf> 73쪽.

11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농업, 먹거리 분야 NGO단체. 런던시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로컬 푸드 관련한 다양한 민관협력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http://www.sustainweb.org>

12 캠든 먹거리 전략계획의 시행을 위해 150개 이상의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 런던시민 3만 명이 얼롯트먼트를 임대하여 831ha를 경작하고 있으며, 그 중 111ha는 도심부이며 720ha는 교외지역에 있음. 런던 시민의 14%가 자신의 먹을거리를 텃밭에서 직접 기르고 있음
- 런던 시내의 얼롯트먼트를 임대하기 위한 대기자들은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대기자수가 많음
- 런던 캄든구의 먹을거리 전략계획 <Good Food for Camden(2009~2012)>¹³: 2009년 수립. 6가지 주요 과제 중에서 먹을거리 기르기가 두 번째로 간주됨

13 http://www.camden.nhs.uk/downloads/Camden_Food_Strategy.pdf

2. 독일의 사례: 분구원, 소정원(클라인가르텐 kleingarten)

○ 역사: 산업화 초기부터 시작됨

- 19세기 중반 빈민원(Armengarten)에서 시작되었고, 도시 빈민의 식량자급 생산을 위해 설치됨
- 정부나 공공단체가 도시 내 유휴지나 공한지를 소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농업활동을 통한 건강과 휴식을 도모하도록 함(장동현, 2006: 44)
- 19세기 초 도시에서 채소가꾸기를 강조한 의학박사 슈레버 박사의 이름을 따서 슈레버가르텐(Schrebergarten)으로 불리기도 함
- 1870년 당시 100여개에 달했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약 1,100개, 2차 세계대전 중 전시 약 7천개로 증가함
- 독일 정부는 1961년 소정원촉진법을 제정하고, 1983년 소정원법을 제정

○ 현황

- 도시민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에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녹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친교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도시구역 안에 10~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개의 작은 정원이 모여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함(주말농장과 도시텃밭의 중간 형태)
- 한 곳당 100평으로 휴식공간·놀이공간·농사공간으로 구분됨. 5~7평 규모의 아담한 오두막에는 의자나 침대 등을 두고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주거는 할 수 없음
- 단지별 동호회가 모여 시군별 협회가 조직되고, 그 위에 전국적으로 19개의 주단위 협회가 있고, 전국단위로 독일 연방협회가 있음
- 현재 1만 5천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약 120만 명이고, 총 면적인 약

4,664ha에 이릅니다

- 25년 장기 임대되고 있고, 판매 및 주거는 제한됨
- 평균 소요비용은 월 약 30유로 가량임 (연간 토지임대료 45유로, 협회비 60유로, 전기료 50유로, 수도료 120유로, 보험금 75유로: 연간 합계 350유로)
- 생산된 농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

〈표 3〉 분구원의 시기별 특징

구분	특징
제1기: 1900년 이전 (전통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에는 분구원보다는 앞마당 녹지공간 형태로 존속 - 슈레버 조합에 의한 소정원지구의 도입으로 토지 확보 - 놀이터, 식물원, 체육시설, 야외극장, 모범정원 등에 의한 심신수련장, 공원 같은 성격 지님
제2기: 1910~1960년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물자 조달 위해 곡물, 채소, 가축 기르는 장소로 활용 - 청소년 및 어린이 심신수련·교화의 기능은 완전 상실 - 분구원 보호 및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 법률제정으로 민간운동에서 국가차원 운동으로 발전
제3기: 1960~1980년대 중반 (분구원의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토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분구원 복원 - 서민층 대상으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복원 - 전통적 의미(채소, 유실수 등)와 현대적 의미의 조경시설물(언못, 산책로, 야외취사장 등) 갖추
제4기: 1980년대 이후 (생태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레크리에이션에서 보건을 강조한 생태공원 성격으로의 전환 - 도시 내 녹지축의 기본단위로 활용 - 도시생태계 악화에 따른 녹지 중요성 계몽 및 생태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 - 분구원 내 비포장사업의 전개, 도보 및 자전거길의 조성, 거름사용 장려, 녹음수 식재, 생태관찰원 설치, 바이오톱 조성 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장으로 전환

출처: 김수봉 외, 2002: 77-91에서 재정리

3. 미국의 사례: 지역사회 공동텃밭(community garden)

- 지역사회 식량 보장(Community Food Security/CFS)의 일환으로서 도시농업과 커뮤니티 가든의 민관협력 사업 추진(허남혁, 2009: 23)
- 제2차 오일쇼크를 통해 지역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 말부터 지역사회 풀뿌리운동으로서 태동: 국가차원의 식량안보 개념을 지역수준으로 재개념화하고, 그 결과 전국적인 단위로서 “지역사회 식량보장연합” (Community Food Security Coalition/CFSC)이 설립됨
- 미국의 커뮤니티 가든은 지역사회 풀뿌리 NGO들이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채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지원함으로써 활성화된 측면이 강함: 지역 주민들이 공동텃밭에서 공동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대개는 지역 공동식당 community kitchen을 통해) 나누어 먹음
- 1996년 미국 농업법을 통해 CFS가 제도화되면서, 연방정부(미 농무부) 차원에서 지역에서 CFS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농민, 소비자, 보건, 환경 등 민간단체들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¹⁴: 대표적인 것이 미 농무부의 Community Food Project 지원사업(연간 40억원 규모로, 지역 NGO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하여 선정된 프로젝트에 지원)¹⁵인데, 여기서 도시농업 관련사업이 핵심적임
-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저탄소 녹색뉴딜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정책이 본격화되고, 그 중 도시농업이 핵심적인 정책수단: 미 농무부는 로컬푸드 정책 포털(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¹⁶를 개설.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백악관 내 텃밭을 만들고 백악관 앞거리에 농민장터를 개설했으며 (2009), 미 농무부(USDA)는 2009년 2월 앞마당에 ‘국민의 텃

14 USDA 로컬푸드 관련정보 사이트:

http://www.csrees.usda.gov/nea/food/in_focus/health_if_usda_local_food.html

15 http://www.csrees.usda.gov/nea/food/sri/hunger_sri_awards.html

16 <http://www.usda.gov/knowyourfarmer>

밭' (People' s Garden)을 조성함

- 최근 미국커뮤니티가든협회(ACGA)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커뮤니티 가든의 숫자가 5천개소가 넘음

○ 시애틀의 도시농업: P-Patch 커뮤니티 가든

- 1973년부터 시작
- 2056가구(4천명 이상의 경작자)가 경작하는 73개의 p-patch(시애틀에서 부르는 커뮤니티 가든의 명칭)를 보유(총 23에이커)
- 23달러의 지원비 납부(저소득층 위한 지원비 지원제도 있음), 면적당 연간 사용료 지불
- 최소한 8시간을 공동텃밭에서 노동해야 함
- 시정부가 민간NGO P-Patch trust¹⁷와 함께 프로그램 운영
- 개별가구의 식용도 있지만 상당부분의 수확물을 푸드뱅크에 기부함: 2009년 12.4톤 기부
- 최근에는 market gardening¹⁸, youth gardening, community food security 등 특히 저소득층, 이주민, 청소년층을 겨냥한 다른 프로그램들도 시행하고 있음

¹⁷ <http://www.ppatchtrust.org>

¹⁸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이주민들이 경작하여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지원농업(CSA)방식으로 판매하는 농장. <http://seattlemarketgardens.org>

4. 일본의 사례: 효고현 다카정 시민농원

○ 다카정 시민농원 현황

- 체재형 시민농원은 농촌에 주거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보다는 주말 체재가 중심이 된 2지역거주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
- 다카(多可)정에는 후로이덴 야치요를 비롯하여 4곳의 체재형 시민농원이 조성되어 있음. 그 중에 야치요(八千代)구의 후로이덴 야치요가 가장 일찍 조성되었으며(1993년 개장), 호응도가 좋은 편임
- 후로이덴 야치요의 경우 처음에 25동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아 이후 35동을 추가로 조성하여 임대하고 있음
- 체재형 시민농원은 공통적으로 주거용 건물과 텃밭, 주차장 같은 개별 시설과 관리동이나 교류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 후로이덴 야치요의 경우 동당 부지 면적은 310㎡이며, 건물면적은 30㎡이다. 건물은 목조 2층으로서 목욕탕, 화장실, 부엌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개별 텃밭과 별도로 공동이용 농원도 갖추고 있음

〈사진 1〉 후로이덴 야치요 전경



〈표 4〉 다까정의 체재형 시민농원 현황

시설명	후로이덴	블라이벤	브루멘	클라인가르텐
구분	야치요	오오야	야마토	岩座神
소재지	八千代구	八千代구	八千代구	加美구
완공년도	1993년	2003년	2004년	2002년
사업비	약 6억엔	약 2억5천만엔	약 4억엔	
구획 수	60	20	30	15
구획 부지	310㎡	190㎡	350㎡	216㎡
건물 및 부속시설	목조2층(27.8㎡) 농원, 과수, 화단, 주차장	목조2층(33㎡) 농원, 과수, 화단, 주차장	목조1층(39.7㎡) 농원, 과수, 화단, 주차장	목조1층 (56.8㎡/ 69.8㎡) 농원, 주차장
입회금	35만 엔	70만 엔	77만 엔	54~66만 엔
연 이용료	276천 엔	304천 엔	396천 엔	540~660천 엔
부대시설	관리동, 교류센터, 공원, 공동농원, 야외무대	공동광장, 농기구창고	잔디광장, 친수공원, 캠프장, 소바체험장, 간이숙박동	관리동, 농기구창고
관리주체	후로이덴 야치요 관리조합	카사가타자연공원교류협회	야마토 체험교류협회	岩座神 다락논 보전추진협의회
등록대기자 (08년 5월 현재)	120명	20명	40명	공실 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 2008 『농어촌 뉴타운 조성 관련 일본 사례조사 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필자가 제작성

○ 시민농원의 운영

- 다까정의 체재형 시민농원은 지자체(町)에서 농림수산성 등 여러 농촌개발 관련 사업을 활용하여 조성하였음
- 후로이덴 야치요의 경우 농림수산성 사업인 농촌 생활권정비사업(1기 25동), 신산촌진흥농촌대책사업(2기 35동) 등을 활용하여 시설을 조성하였음. 블라이벤 오오야의 시설 조성에는 교류공간정비사업비를 활용하였음

- 사업비는 후로이덴 야치요는 약 6억 엔, 블라이 오오야는 약 2억5천만 엔 이 소요되었음. 이 중 국비가 약 1/2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자체(다카정)에서 투자하였음(현의 보조는 없음)
- 전체적인 농원시설의 관리 업무는 인근 마을의 주민 조직체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시설 임대료는 농원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며, 모두 1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하고 있으며, 임대 계약 시에는 기존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후로이덴 야치요의 경우 특히 인기가 좋은 편이어서 연 2~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계약을 연장해오고 있음. 전체 60동 중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용하는 가구도 35호에 이를 정도임
- 후로이덴 야치요에서는 다수의 입주자들이 장기 이용자이며 매 주말 거의 빠짐없이 시민농원에 찾아와 머무는 까닭에 입주자들 간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으며, 친목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기도 함
- 주변 마을과 입주자들의 상호 교류 정도는 4개의 시민농원이 모두 다른데, 다른 3곳에 비해 비교적 오래 전에 조성한 후로이덴 야치요의 경우는 지역 주민들과 입주자들이 주말에 맞추어 공동으로 각종 행사나 이벤트를 벌이기도 함

〈사진 2〉 블라이벤 오오야와 커뮤니티센터



참고문헌

- La Salle, J. and Holland, M. 2010, *Agricultural Urbanism: Handbook for Building Sustainable Food Systems in 21st Century Cities*, Green Frigate Books.
- London Food, 2006,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for London: The Mayor's Food Strategy*, London Development Agency. (<http://www.london.gov.uk/londonfood/docs/london-food-strategy.pdf>)
- Select Committee on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al Affairs, 1998, *The Future for Allotments*, London: House of Commons.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199798/cmselect/cmenvtra/560/56002.htm>)
- 김재국, 허재완, 2010, <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박용범 외, 2008, <생활농업으로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도시생활농업 제도화 및 성과관리 방안>, 농촌진흥청.
- 장동현, 2006, “생태지향형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허남혁, 2009, “국내외 로컬푸드 정책동향과 지역정책화의 함의”, 석태문 외, <로컬푸드 정책방안: Farm to Table>, 대구경북연구원.
- 황석중 역, 2006, “도시민을 위한 녹색의 휴식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과학원예>, 12(1). (<http://blog.nongmin.com/cool/index.htm>)